

이억태 제주목사와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글 _ 강 창 룡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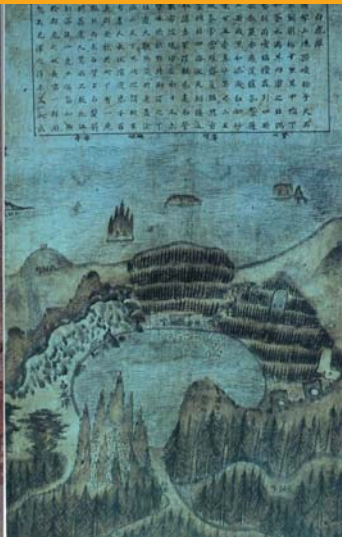
The Magazine of Culture & Art Foundation



성산(城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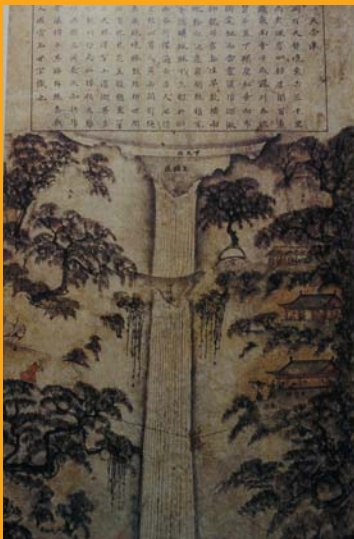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瀛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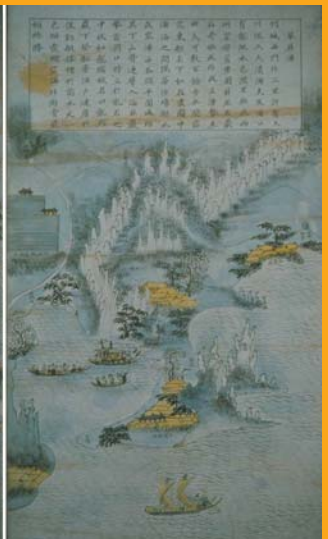
천제연(天帝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빙담(翠屏潭)

이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

(현재 없는 2폭 중에 「조천관」은 현재 슬라이드 필름이 일본에 있을뿐만 아니라 「별방진」은 발굴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힙니다.)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는 조선 중기 17세기 후반에 유행했다. 이 실경산수화는 실제 경치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지역의 지리적 정보를 실용적인 목적에서 담아낸 지형적 회화와 친연성이 있다. 이들 실경산수화 중에는 광대한 공간을 파노라마(panorama)적으로 표현하여 먼 곳을 내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땅 이름을 기입하고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물을 배열하는 것도 있다. 더구나 실경산수화 중에는 채색으로 경물(景物)을 구별하기도 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특정 지역의 경관을 한 세트(set)로 유형한 ‘팔경도(八景圖)’ · ‘십경도(十景圖)’ 등은 중국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이후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에 기반하여 여러 지역에서 잇달아 형성되었다. 타 지역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뛰어난 좋은 경치의 장면들을 팔경 혹은 십경으로 유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화가들도 이를 회화적으로 재현하였다. 이처럼 문인들이 이름 없는 경치에 이름을 붙이고 팔경·십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시문(詩文)으로 표현하거나 회화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뛰어난 좋은 경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승경(勝景)의 인식은 우리 국토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적 대상으로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점차 감상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한 경치에 이미지를 부여하고 향유하는 과정은 실용적인 기능을 지닌 명승안내도가 감상화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테면 산이나 봉우리, 폭포·계곡 등의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누각·정자·다리 등의 인공적인 경치 등도 부각된 것이다. 곧, 유명한 명소(名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설이나 전승문학 등 어떤 고유한 감정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짓는 경우가 많았다.

실경산수화에 기입된 땅 이름은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동시 진행의 텍스트(text)로 기능했다. 더욱이 그림 위에 쓰인 제발문(題拔文)이나 시문(詩文)은 그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얼마간의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 당시 문인들은 직접 체험 가능한 실

경(實景)을 통하여 자연의 참된 모습을 체득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사 관료(文士官僚)들이 지방의 외직(外職)으로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 부임지 근처의 명승지(名勝地)를 탐방하여 자연풍광을 즐기고 자신의 심성(心性)을 도야(陶冶)로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며 교양이었다.

한편, 17세기 후반, 당시 세인(世人)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던 제주 삼읍의 수려한 경관 중에서 내세울 만한 장소 10경(景)을 가려내어 선양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바로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이다.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 서(耽羅十景圖序)」에 의하면,

제주 삼읍의 관방의 경치가 좋은 곳, 바위·폭포의 뛰어난 곳은 이곳저곳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가 등한시하여 보기만 하고 내버려두었다. 조금도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에는 칭송의 자자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육지 사람들은 적게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가히 애석하였다. 내(이익태 제주 목사 - 필자주)가 자주 적으며 쓰는 사이에 두 번째로 순력하면서 풍속을 물어 볼 겨를이 있었다. 이른바 가히 볼만한 곳에 이전 사람들의 걸어온 자취가 닿지 않았던 곳을 속속들이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제주삼읍을 두루 살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경치의 10 풍경은 화가를 빌어 손수 형상을 본떠 그리니 조그마한 병풍을 하나 만들어 내놓았다. 뒷면에는 그 일의 자취를 서술하여 마땅한 곳을 골라서 두루 보는 데에 편리하도록 할 뿐이다.¹⁾

위의 자료에 의하면, 이익태 제주목사는 숙종 20년(1694)에 제주삼읍을 두루 살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10경치를 가려내고, 화가의 손을 빌어 손수 형상을 본떠 그리게 하여 조그마한 병풍을 하나 만들어서 뒷면에 그 일의 자취를 서술해 마땅한 곳을 골라서 두루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1) 李益泰, 『知瀛錄』 「耽羅十景圖序」.

本島遊在海外千里 而周回五百里 漢孳山居其中 東西二百里 南北七十里 人物之盛繁 山海之險阻 貢進之夥饒 實國家之重地也 其關防之勝 巖瀑之奇 在在相望 而人皆等閑看過 無一記實而著稱 故陸地之人 渺有聞知者 是可惜也 余於數載之間 再度巡歷 問俗之暇 所謂可觀處 前人足跡 所未到者 無不窮搜 遍踏濟 其中最勝十景 倩龍眠手摹形畵 出作一小屏 敘其事蹟于上面 以便取覽云爾.

특히 제주지방에 있는 관방(關防) 중에서 조천관(朝天館)·별방소(別防所)·명월소(明月所)의 경치를 꼽았고, 바위가 기이한 곳으로 성산(城山)·백록담(白鹿潭)·영곡(瀛谷)·산방(山房), 폭포가 기이한 곳으로 서귀포(西歸浦)·천지연(天池淵) [현재 천제연-필자주]·취병담(翠屏潭)을 보았다. 이 「탐라십경도」 중에 일부를 가편집한 것이 <그림 1>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이다. 특히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는 이형상 제주목사가 숙종 28년(1702)에 만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보다도 6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림 2> 「서귀소」와 「서귀조점», <그림 3> 「천제연」과 「현폭사후», <그림 4> 「명월소」와 「명월조

점, <그림 5> 「취병담」과 「병담범주」 등을 통해 볼 때,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는 이형상 제주목사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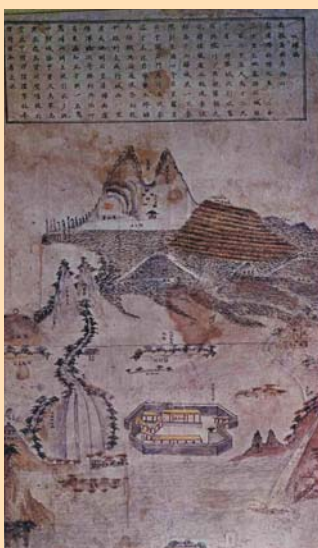
또한, 『야계선생연보(冶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이익태 제주목사는 현종 4년(1663, 31세)에 속리산(俗離山), 현종 14년(1673, 41세)에 내외 금강(內外金剛), 숙종 6년(1680, 48세)에 두류산(頭流山) 등을 여행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숙종 20년(1694, 62세)에 한라산(漢拏山)·천지연(天池淵)·정의관(旌義館) 등을 순력(巡歷)했다. 따라서 이익태 제주목사는 과거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 삼읍

<그림 1>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



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瀛谷) 천제연(天帝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屏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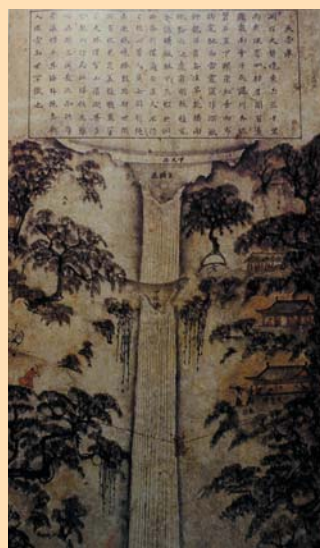
(이 자료들은 「韓國民畫」·「濟州의 歷史와 文化」·「李朝民畫」에서 발췌하여 가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림 2>
「서귀소」 「탐라십경도」 (1694년)



「서귀조점」 「탐라순력도」 (1702년)



<그림 3>
「천제연」 「탐라십경도」 (1694년)



「현폭사후」 「탐라순력도」 (1702년)

에서 관방·바위·폭포 등을 살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태 제주목사가 전국의 산천을 두루 답사하여 얻은 폭넓은 체험과 해박한 지식은 「탐라십경도」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기저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숙종(肅宗) 21년(1695)까지 책자에는 제주삼읍의 경치·관방 등에 관한 것이 글로만 알려졌다. 그러다가 숙종 21년(1695)에 이익태 제주목사가 「탐라십경도」를 제작함으로써 말미암아 제주 삼읍의 경치·관방은 그림과 글로 모두 알려지게 되었다. 이익태 제주목사는 그 당시의 서인(西人)들이 조선 왕조의 국토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지극한 국토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익태 제주목사가 만든 「탐라십경도」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영주십경도(瀛洲十景圖)」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익태 제주목사의 「탐라십경도」(원본)를 소장하거나 소재를 아는 있는 분이 계시면 제주문화예술재단(☎ 710-3491-2)으로 연락바랍니다. ☎

《 참고 문헌 》

李益泰, 『知瀛錄』(筆寫本).

李益泰, 『冷溪先生年譜』(筆寫本).

홍선표, 「남구만제 함흥십경도」 『미술사연구』 2호, 1988.

이태호, 「한시각의 북새선은도와 북관실경도-정선 진경산수의 선례로서 17세기 실경도」 『정신문화연구』 34호, 1988.

김현지, 「조선전기 실경산수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2, 31.

이수미, 「「함흥내외십경도」에 보이는 17세기 실경산수화의 구도」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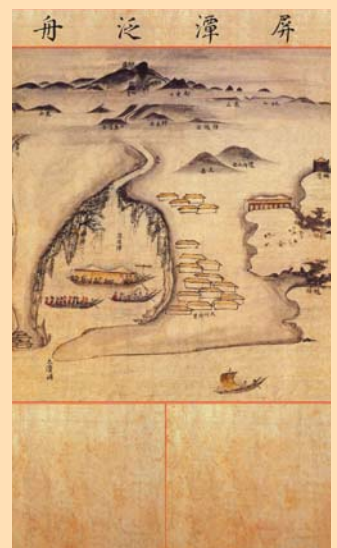
〈그림4〉
「명월소」 「탐라십경도」 (1694년)



「명월조점」 「탐라순력도」 (1702년)



〈그림5〉
「취병담」 「탐라십경도」 (1964년)



「병담범주」 「탐라순력도」 (1702년)